

함영의 **밥맛 나는 세상**

41 밥은 기행

불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최근 들어 내 몸에는 알 수 없는 변화가 시작됐다. 채식주의를 지향한 적도 없는데 몸이 의식과는 다르게 '따로국밥'이다. 소든 돼지든 그러한 생명들이 인간들의 세상에서 치를 수밖에 없는 희생에 대해 내가 느끼는 비애감이란 사실 그다지 크지 못했다. 우리가 흔히 즐겨먹는 유동(有動)의 생명체에 대한 나의 생각은 부동(不動)의 생명체와 다를 게 없었기 때문이다.

'채식' 또한 생명을 해치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라는 평소 생각은, 어느 날 샤워 물에 익사돼 하수구로 휩쓸려가는 개미들의 떼죽음을 목격한 후로 더욱 굳건해졌다. 샤워를 하는 중에도 어딘가를 터벅터벅 걷는 중에도 수많은 생명들이 익사나 압사 등의 사고를 수없이 당하는 사실은, 불살생의 정신이 얼마나 비현실적인 '이상'인지를 말해줬다. 그러니 내 입에 와 닿은 인연됨이 무엇이든 감사히 받아들이는 게 차라리 속 편하다는 생각이다. 여하튼 확고부동했던 이러한 생각이 근자에 들어 헷갈리고 있다. 내 몸이 육식에 거부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먹다가 배탈 난 아구 수육.

이러한 정체성의 혼돈기 중에 일본에서 영국인 지도교수 부부와 경주에 놀러온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의 지도교수부부가 골프를 즐기는 동안, 가이드를 맡은 후배와 자유 시간이 주어졌으니 자신들의 일정을 알아서 책임지라는 얘기였다. 우선 한낮의 더위부터 피하고자 질좋은 커피와 빵으로 소문난 카페에 들렀다.

"불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내 팔에 감긴 염주를 의식했는지 친구의 후배가 뜬금없이 물어왔다.

"도올이 달라이라마에게 그런 질문을 했는데 달라이라마는 '과학'이라고 답했다고 하더군요. 그만큼 불교는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종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불교는 종교라기 보단 철학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친구와 마찬가지로 정치외교학을 전공한 후배는 내 대답이 터무니없게 들린 모양이다.

모태신앙이 불교라는 그에게는 우리의 어머니들이 보통 그러하듯, 기독교적인 사고관이 그렇듯 불교는 맹목적인 믿음이 필요한 종교였다. 그에 대한 반박에 "기독교적으로 불교를 바라보면 불교를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라는 말이 튀어나왔지만, 학자인 그의 까짐도 만만치가 않아 우리의 언쟁은 바깥의 더위만큼 찌는 듯했다.

카페에서 나와 백로의 서식지로 유명한 숲을 들러 다음으로 향한 곳은 경주 시내의 한 횟집이었다. 그곳에서 후크 선생님 일행과 저녁식사가 약속되어 있었다.

"이 집이 자연산만 취급한다네요. 저녁은 후크 선생님이 한 턱 낸다니까 양껏 먹어보자구요." 회라면 환장하는 친구나 그의 후배는 자연산회에 대한 기대가 커 입맛을 쩝쩝 다시더니, 후크 선생님이 오기도 전에 회 한 접시를 동을 내고는 아구 수육까지 주문했다. 평소 회를 좋아하지 않는 나는 두 사람의 부추김에 한 점 두 점 입에 넣다보니 '이 날것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갈등도 이내 사라져, 그 좋아하는 아구 앞에 서는 마지막 한 점까지 독점해버렸다. 약속시간을 한참 넘긴 후에 나타난 후크 선생님 일행이 그날의 에피소드를 쏟아놓는 중에도, 쫄깃한 아구 수육에 반해 체면치레도 잊은 내게 후크 선생님이 갑자기 질문을 했다.

"불교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짧게 한 문장으로만 말해볼래요?" 내게는 종교를 넘어 그 깊이를 가늠할 수도 없는 심오한 철학인 불교를 어찌 한 마디로 하리오만, 어디서 들은 풍월은 있어가지고 순간 내 입에서는 "Buddhism is just life"라는 말이 나왔다.

고개만 두어 번 끄덕이다 일행들과 다시 여담을 나누며 회를 먹던 그가 잠시 후에 다시 물어왔다. "그렇다면 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기독교의 문명에서 자란 그에게 신도 인간의 창조물이라고 답했다면 뭐라 했을까. 후덕해 보이는 그의 반응이 궁금해 짓궂은 생각도 들었지만, 그 순간에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아구를 수육으로 먹어보니 너무 맛있더라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 날 밤에도 어김없이 배탈이 났고, 내 몸과 의식이 따로국밥이 된 까닭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지만 아직 나는 그 답도 찾지 못했다. 자유기고가, blog.naver.com/owisdom

행복한 삶을 위한, 선과 禪 심신건강 心身健康

47 삶의 흔적

박지숙 박사 한·양방 의료센터 salm 마인드힐링연구소

누군가의 마음에 따뜻하고 행복한 흔적 남겨야

#흔적이 남는다는 것

삶을 살다보면 수많은 흔적을 보게 된다. 아무도 지나가지 않은 소복히 쌓인 하얀 눈 위에 발자국도 흔적이 될 수 있고, 가끔 신기하게 쳐다보는 파란 하늘 위에 구름을 헤치며 지나간 비행기 자국도 흔적이며, 또는 누군가 오랫동안 물건을 쓴 듯한 흔적, 누군가 내 차에서 내리고 난 후 남은 향취도 흔적이라 할 수 있겠다.

이렇듯 흔적은 눈에 보이는 것일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어느 흔적이건 간에 흔적을 보고 느끼는 우리는 그 흔적의 실체가 현재 옆에 있거나 없어도 그 존재 자체를 상상할 수 있고, 되새겨지거나 아스라이 떠올릴 수 있다.

"발자국의 주인공은 어린아이인가 보구나", "지나간 저 비행기는 어디를 가고 있는 것이었을까?", "이 고가구에는 사용하던 그 사람의 정성이 가득 배어 있구나…", "그녀의 향수는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네…" 등등 흔적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 존재를 다시 한 번 상기시키게 해주는 역할을 톡톡히 한다.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나의 흔적을 아주 잘 남겨야 지나간 발자국이 아름다워 보일 수도 있는 것이며, 나의 잔향이 향기롭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다.

#누군가 마음에 다녀간 흔적

뭐니뭐니 해도 흔적 중에 제일은 사람이 마음에 다녀간 흔적일 것이다. 누군가 마음에 다녀가고 나면 두 가지 흔적이 남는다. 아름다운 향기를 남길 수도 있고 아픈 상처를 남길 수도 있다. 아름다운 향기는 따뜻하고 설레게 만들어주며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반면, 아픈 상처는 시리고, 차갑고 슬프게 만들어주며 미어지는 통증을 느끼게 한다. 특히 시간이 길었던 짧았던 간에 질긴 정이 들었던 사람이 다녀가면 그 흔적과 여운은 더욱 지워지지가 않고 오래 남기에 마음의 준비를 잘 해야만 한다.

내가 흔적의 주인공이면 나의 뒷발자국이나 여운에 대하여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그러나 내가 흔적이 남아 있는 필드의 주체라면 너무나 선명하게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다. 다녀간 사람에게는 흔적이 남지 않지만 흔적이란 것이 남겨진 사람에게만 깊이 새겨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때로는 다녀간 흔적을 문득문득 느낄 때마다 그 여운을 잊지 못하고 놓지 못해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리워하며 웃음 짓기도 한다. 이 모든 것이 흔적이 남았기에 가능한 일이다. 흔적은 내가 원하던 원치 않던 남기 마련이다. 누군가 마음에 다녀 갈 때도 원하건 원치 않던 예고 없이 왔다, 통보 없이 가는 것처럼.

#내가 남겨 놓은 흔적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내가 다녀간 흔적에 대하여 생각해보고 챙겨볼 필요성이 있다. 어떤 흔적이냐에 따라 상대를 너무나 기쁘게 만들어 줄 수도 있고, 그 반대로 너무나 힘들고 슬프게 만들어 줄 수도 있기에. 힘들고 슬프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다들 겪어 보아 잘들 알지 않는가? 기쁘고 환한 웃음을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너무나 잘들 알지 않는가? 고통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 잘 알기에 그 슬픔을 상대에게 남기고 싶어하지 말아야 한다. 아니 남기지 말도록 해야 한다. 행복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 잘 알기에 그 기쁨을 상대에게 최대한 많이 남기려고 해야 한다. 아니 많이 남겨야만 한다. 그래야 흔적을 남기고 온 나의 뒤가 함께 풍요로워지고 밝고 따뜻해지며 사랑스러워질 수 있는 것이다.

누군가 나의 흔적으로 인해 울고 있다면 비록 내가 함께 있지 않아도, 평생 만날 수 없는 사이라 할지라도 그 슬픔과 고통의 에너지는 그대로 나에게 오게 되어 있다. 반대로 누군가 나의 흔적으로 인해 뿌듯해하고 따뜻해하며 웃고 있다면 행복에너지는 수백 배가 되어 그대로 나에게 전이돼 나도 함께 환희로워지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명확한 수수법칙이다. (02) 576-7575





초극세사 방수원단과 보아털을 사용해 보온효과에 탁월한 만행화 털신.

보온효과 탁월한 '보아털' 만행화에 사용

겨울이 올 무렵 충주 석종사 혜국 스님을 찾아 뵌 적이 있습니다. 석종사 혜국 큰스님은 불사로 바쁘심에도 반갑게 맞이해 주면서 '이렇게 좋은 신발 만들어 스님들이 신을 수 있도록 해줘 고맙다'고 하며 만행화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석종사를 찾아간 날 저는 직접 절에다 제가 만든 만행화를 널리 알리고 싶었기에 스님께 홍보를 하고 싶다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전국의 사찰에 다니면서 신발을 알리기 위해 방법들을 물어보며, 혜국 스님께 전국 선원에 가서 만행화 신발을 선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큰스님께서는 동안거 결제일이 아직 멀었기 때문에 방부를 들여야만 선원의 스님들이 신발을 찾아도 찾지 않겠느냐며 조언을 해주셨고, 또한 100일간 공부하러 들어가시고 100일간 산문밖 출입을 안하시는지라 스님들의 신발구입은 어려울 것이라며 선원의 스님들이 방부를 하면 해당 사찰의 원주실에서 일괄구매를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큰스님은 신발가격이 비싼 것 또한 판매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저는 제가 만행화 신발을 수제로만 만들어야 한다고 마음먹었을 때 생각했던 '부처님의 불법을 전하는 스님들이 신을 신발이기에 스님 신발은 정성과 혼이 담긴 신발이어야 한다'라는 이유를 들며 어쩔 수 없이 가격을 높이게 됐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에 석종사 혜국 큰스님께서는 신발을 알리러 온 저에게 방한용 털신을 어느 정도 가져왔냐고 물으시며 스님, 재가자, 종무원직원이 신을 수 있게 수십 켤레의 털신을 구매했습니다. 제가 개발한 만행화 털신은 신발로 초극세사원단과 바이오실리콘깔창(바이오와 실리콘을 첨가해 만든 깔창으로 지압효과에 탁월한 기능)으로 만들어져서 발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초극세사 방수원단을 사용, 보아털을 사용해 보온효과에 탁월하기 때문에 겨울에 산문 밖을 출입하는 스님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었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정성을 담아 만든 100% 수제화 만행화 신발들을 대중이 신어 편안함이 입소문을 통해 전달되다보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한번 석종사 혜국 큰스님께 지면을 통해 고마움을 표하고 싶습니다. (02)733-5715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초발심자경문
이 초발심자경문은 한문을 새기는 힘인 문리를 터득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러 의역하지 않고 직역하였다. 대원 선사님의 살아있는 수행지침도 실려 있다.
초발심자경문


전강 대선사 법어집
달다
법회안내
매월 첫째 일요일 서울 정맥선원 선가귀감 법문 02-3494-0122
매월 둘째 일요일 국제 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31-531-8805
매월 셋째 일요일 광주 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62-944-4088
매월 넷째 일요일 부산 정맥선원 반야심경 법문 051-503-6460
02-3494-2460 www.zenparadise.com

나한님의 영험이불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목조, PC고건축, 사찰문, 나한님
한국고건축
문화재수리기능보유등록 제 1853호
금호 임영창 합장
8치, 1자, 1자 2치, 크기로 조성합니다.
16 나한님 목조각, 채색조성
500 나한님 목조각, 채색조성
1,250 나한님 목조각, 채색조성
2009년 현재나한 11,532분째 풍부한 경험, 실적으로 조성불사중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올리는 예불문에 나오는
"일천이백오십분의 나한님은 부처님의 최초제자인
다섯비구, 가섭삼형제의 제자였던 천명의 비구들
(우루빈나가섭의 오백제자, 나제가섭의 이백오십제자,
가야가섭의 이백오십제자, 그리고
사리불과 목련을 따르던 이백오십명을 말합니다."
◈ 1,250 나한도 1권 판매금액 180,000원
◈ 입금계좌 : 농협 174392-56-064352 (예금주:이애경)
불사 상담문의 041)567-2600 / 011-421-5337
인터넷 주소창에 "고건축" 검색어 삽입
www.ehanok.com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1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이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30,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5,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 부산지역은 부산농협 각지점 "신토불이 매장"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핀란드에서 온
100% 야생블루베리!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기능성 색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을 폭격하던 영국공군 조종사들이 야간비행 전에 블루베리를 주식으로 먹었습니다. 이후 물체식별이 향상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블루베리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다량의 안토시아닌 덕분에 블루베리는 우리몸의 젊음을 지켜주는 과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할인판매


블루베리 파우더
~~35,000원~~
⇒32,000원


블루베리 주스
~~46,000원~~
⇒42,000원


크랜베리 주스
~~46,000원~~
⇒42,000원
YADANBEOPSEOK 야단법석 구입문의:010-5318-0704
www.01053180704.com